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4 Tel 02.765.3011~3



일본의 새소식

2019 **SPRING**

Vol.

564



표지

다이센산 은하수 (大山, 天の川) 돗토리
제5회 한일포토콘테스트 금호아시아나상
Photo : KIM HYUNGJIN

통권 564호 계간지
(2019년 봄호부터 계간지 발행)

발행일 2019년 6월 26일

발행처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디자인 상상디자인

CONTENTS

대사관 관련

- 03 주한일본대사관 주최
2011년 동일본대지진 그 후,
영화 '봄은 온다' 상영회 개최
- 04 日本語で語るニッポン
윤미아 감독 인터뷰 - 그래도 봄은 온다!
- 08 JENESYS 2018 한국청년방일단
Cool Japan! 세계유산지역의 매력 발신

일한 관계

- 10 자매도시 소개
· 돗토리시와 청주시 교류
· 세계로 가는 시라하마정, 과천시와 태안군의 교류

일본 사정

- 16 일본의 계절을 걷다
고양이가 있는 아마구치의 도자기 마을 하기
- 20 조금 특별한 공간 미치노에키
일본에서 가장 맛있는 햄버거가 있는 아와지시마 미치노에키
- 24 트렌드 앤 트렌드
스페셜티 커피를 중심으로 한 도쿄의 새로운 커피 트렌드 & 스타
- 28 일본이 알고 싶다
·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다카오카시
· 이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체험이 기다린다! 아이치현 오쿠미카와

일본 문화

- 34 프리츠커상을 받은 일본의 건축 건축가
물과 빛, 노출 콘크리트의 건축가, 안도 다다오
- 38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찾아서
바닷마을 다이어리의 촬영지 에노시마, 가마쿠라

공보문화원 광장

- 42 · 한일축제한마당 2019 in Seoul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 제8회 대학생 일본어 연극대회 참가대학 모집
· 제7회 고교생 일본퀴즈대회 참가자 모집

문화 행사

- 43 · 2019 여름일본문화 소개전
·故이수현 18주기 추모 사진전 · 공연 ·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보고서

- 44 산딸기는 보너스 규슈 올레 야메코스



주한일본대사관이 주최한 영화 상영회 및 관객과의 대화를 마친 후 기념촬영

주한일본대사관 주최 2011년 동일본대지진 그 후 영화 '봄은 온다' 상영회 개최



왼쪽부터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윤미아 감독, 엔도 부부

동일본대지진 6년 후, 재해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봄은 온다. Life Goes On(일본 제목: 一陽來復 Life Goes On)'이 한국에서 개봉되어, 지난 3월 30일(토)에 주한일본대사관 주최로 상영회 및 관객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화 '봄은 온다'는 2011년에 일어난 동일본대지진 이후, 모든 것을 잃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삶을 일구며 내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희망을 담은 영화로서, 상영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삶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다.

상영회에 이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의 인사를 시작으로, 윤미아 감독과 출연자인 엔도 부부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되었다.

또 이와테현 미나미산리쿠 병원(岩手県 南三陸病院)으로 재해 지역 여러분을 격려하는 그림을 보낸 '그림나라미술학원' 학생들도 참석하여 기념촬영을 함께했다.

대사관 관련 | 日本語で語るニッポン 윤미아 감독 인터뷰



그래도 봄은 온다!

동일본대지진 후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봄은 온다. Life Goes On(일본 제목: 一陽来復 Life Goes On)'을 감독한 재일교포 3세 윤미아 감독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연한 듯 주어지는 삶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975년 나가노현 출생. 재일한국인 3세이며, 일본의 국립학교를 다녔고, 주변에 한국인이 없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한국어는 못 합니다. 대학 졸업 후, 인도에서 디자인 공부를 했지만, 반년 만에 일본으로 돌아와서 홍보 일을 했습니다. 영화감독으로서 영화계에 들어간 것은 서른 살 전이었고, 한국에서 지난 3월에 공개한 '봄은 온다'가 처음으로 감독한 작품입니다.

'봄은 온다(Life Goes On)'가 해외에서는 최초로 한국에서 극장 상영되었는데, '봄은 온다'라고 제목을 정하신 이유가 있다면.

일본에서는 '일양래복(一陽来復, Life Goes On)'이라는

まず、簡単に自己紹介をお願いします。

1975年長野県生まれ。在日韓国人3世で、日本の公立学校に通い、周りに在日がない環境で育ち残念ながら韓国語は話せません。大学卒業後はインドでデザインの勉強をしましたが、半年で日本に戻って広報の職につきました。映画監督で、映画の世界に入ったのが30歳手前で2019年3月に韓国で公開していただいた『봄은 온다(春は来る, ボムオンタ)』は初めて監督として取り組んだ作品です。

'봄은 온다(Life Goes On)'가 해외でははじめて韓国で劇場公開されましたが, このようなタイトルをつけた理由は.

日本では『一陽来復(いちようらいふく) Life Goes On』というタイトルでした。冬至の日を境に、陰陽が逆転して日が長くなる

제목으로 상영되었습니다. 동지를 경계로 음양이 바뀌고 해가 길어지기 때문에, 나쁜 일이 계속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좋은 일도 있다는 의미로 쓰이게 된 말입니다. 이 영화는 동일본대지진을 겪은 분들의 6년 후 모습을 그린 것인데, 거기에는 비장하거나 필사적인 모습보다는 많은 것을 가슴 속에 간직하면서도 평화롭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들께 다가가는 제목이기도 하고, 또 누구든지 어려울 때 떠올리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해서 ‘일양래복’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한국어로 ‘봄은 온다’는 일본어 제목의 의미를 담은 매우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분들에게 그 뜻을 물어보니 ‘봄은 온다’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 외에, 힘들거나 어려운 어떤 일이 있을 때 ‘괜찮아, 봄은 온다’고 위로할 때도 쓰이기 때문에 따뜻한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첫 감독 작품으로서 동일본대지진 관련 영화를 찍어야겠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었나요.

전작 ‘공치와 카타르 오나가와 사람들’이라는 영화로 미야기현 오나가와정(宮城県女川町)을 3년 가까이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제작 프로듀서였지만, 이 작품을 통해 재해를 입은 분을 만나서 많은 슬픔과 분노를 느끼는 동시에, 그들이 사는 에너지에 압도되었습니다. 삶의 온도가 높다고나 할까, 도쿄에서 허덕이며 일하는 우리와는 전혀 달라서, 정말 가치 있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영화는 2016년에 완성되었지만, 1편의 영화가 전할 수

ことから、悪いことが続いた後には物事は必ずいい方向に向く、という意味で使われるようになった言葉です。この映画は、震災に遭われた方の6年後の姿を追ったものですが、そこにあるのは、悲壮さとか必死さというより、いろいろなことを胸に秘めながらも穏やかに暮らそうする人々の姿でした。彼らに寄り添うタイトルでもあり、かつ誰もがつらい時に思い出したい言葉でもあると思い、「一陽来復」をタイトルにしました。

韓国語の『봄은 온다』は、日本語タイトルの意図を汲んだとてもいいタイトルだと思います。韓国の方に『봄은 온다』は文字通りの意味以外に、何かつらいことや困難があるときに「大丈夫、春は来る」という声掛けにも使われるので温かい気持ちになると言われました。

初監督作品として東日本大震災に関する映画を撮ろうと思ったきっかけは。

前作『サンマとカタール 女川つながる人々』という映画で、宮城県女川町に3年近く通いました。その時は制作プロデューサーという立場でしたが、その作品を通じて被災した方々に会い、たくさんの悲しみ、悔しさを感じるのと共に、彼らの生きるエネルギーに圧倒されました。この生きる温度の高さというか、東京であくせく働いている我々とは全然違って、本当に価値あるものに思えました。

2016年に映画は完成しましたが、1本の映画で伝えられることにはやはり限りがあり、ここで終わらせたくない、だから復興庁にプロジェクトを申請して採用してもらった時、監督をしたいと手を挙げました。

2016年の夏から2017年の春まで約100人に会い、彼らの日常の話を映画化していますが、出演者はどのように選びましたか。

前を向いている人、というのが最大の基準でした。何かをやろうとしている人、している人、してきた人。やはり、前に向けない人もまだ大勢いらっしゃる。そういう方々に無理に話を聞きだすことは、取材者の自己満足に過ぎないのではくないと思いました。よくドキュメンタリーや報道というのは「闇」を照らし出すことが多いのですが、私は「光」を捉えようと思いました。光を見ても、その後ろの闇は感じられればいい。そのくらい強



영화 '봄은 온다'의 윤미아 감독

있는 것에는 역시 한계가 있었고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흥청에 프로젝트를 신청하고 채용되었을 때, 감독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2016년 여름부터 2017년 봄까지 100여 명을 만나서, 그들의 일상 이야기를 영화화했는데, 출연자들은 어떻게 정하셨나요.

미래로 향하고 있는 사람이 최대 기준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 하고 있는 사람, 해 온 사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억지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취재하는 사람의 자기만족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흔히 다큐멘터리나 보도에서는 '어둠'을 비추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빛'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빛을 보면서 그 뒤의 어둠이 느껴지면 된다. 그만큼 강한 어둠이 동일본대지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분이 출연하는 영화가 될지 몰랐습니다.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에서 각각 1쌍을 선택하려 했지만, 촬영 차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해주시니, 완성된 영화에 본인이 나온다면 훨씬 더 기뻐하실 것 같아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영화를 찍으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특히 신경 쓴 부분은.

처음부터 정해진 스토리는 없었고 '마음의 부흥'이 테마였는데, 결정적인 말이나 순간을 찍는 일은 역시 어려웠습니다. 촬영을 가면 가능한 한 그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냈고, 그 동안에 카메라를 켜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카메라를 돌린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정

이關があの震災にはあったと思います。

実は当初はこんなに大勢の方々が出演する映画になるとは私も思っていませんでした。岩手県、宮城県、福島県、それぞれ1組を選ぼうと思っていたのですが、撮影に行くだけで喜んでくれるのなら、完成した映画に自分が写っていたらもっと喜んでくれ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方向転換しました。

映画の撮影で難しかったことや特に気を遣った部分は.

最初から想定していたストーリーはなく、「心の復興」がテーマでしたが、決定的な言葉や瞬間を撮ることはやはり難しかったです。撮影に行ったらできるだけその方々の日常の空間にいさせてもらって、その間にカメラを向けていましたが、ずっとカメラを回していることは物理的に不可能です。決定的にいい言葉が出たときに撮影できていないのは致命的ですが、一切演出もしませんでした。途端に「作り物」になってしまうと思ったのです。だから編集はとても苦労しました。気を遣ったことは、とにかく被災された方々にとって負担がかからないようにということです。嫌な撮影や嫌な質問はしない。距離が必要そうだったら撮影をやめる。あれだけつらい目に遭った方々ですから、この映画によって嫌な思いをすることがないように、というのは絶対条件でした。

東日本大震災当時、多くの韓国人も自発的な募金などを通じて痛みを分かち合いましたが、皆様にお伝えしたいメッセージがあれば.

皆さん一人一人の思いが、きっとあの震災に遭った誰かを救っています。映画にも出てくる南三陸の方が「韓国からの救援



영화에 출연한 엔도 료코 씨



영화에 출연한 엔도 신이치 씨

적으로 좋은 말이 나온 순간을 찍지 못한 경우는 치명적이지만, 전혀 연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짜’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편집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신경 쓴 부분은 어쨌든 재해를 입은 분들께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촬영하기 싫거나 대답하기 싫은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 때는 촬영을 접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니, 이 영화로 인해 조금이라도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절대 조건이었습니다.

동일본대지진 당시, 많은 한국인들이 자발적인 모금 등을 통해 아픔을 나누었는데, 그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그 당시 재해를 입은 누군가를 구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미나미산리쿠 주민도 “한국에서 많은 구호물자가 도착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도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픔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능력이자 선물이 아닐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이어져 있다면, 강력한 결속력을 지니게 됩니다. 일한 양국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국가, 국민, 시민 차원에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마주할 때, 그곳에는 아무런 장애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대형 참사가 났을 때도 많은 일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 고통을 함께하고 연대함으로써 아픔의 원인을 제거하고, 나아가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카메라에 담고 싶은 내용이나 꿈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이번에 감독으로 영화 제작을 하면서, 제가 영상 제작을 정말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촬영가는 게 기다려졌고, 이를 한편의 영화로 어떻게 담아낼까 하는 편집 작업은 힘들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여러 가지 흥미로운 주제는 있었지만, 이번에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면서 후쿠시마에 대한 뜬소문에 의한 풍평 피해가 크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 살아있는 정보를 지속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화에 출연한 엔도 신이치, 엔도 료코 부부와 함께

物資、たくさん届いていました」と言っていました。あの混乱の中、多くの方が助けられたと思い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痛みを共感できるというのは、人間に与えられた最高の能力、ギフト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目に見えない部分でつながると、それは簡単には切れない強い結びつきになります。日韓には多くの問題がありますが、国、国民、市民とレベルを分けて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人と人が向き合うとき、そこには何の障害もありません。韓国で大きな惨事が起こるときも、日本で大勢が涙を流して心を痛めています。私たちは人として痛みに寄り添い連帯することで、痛みの原因を取り除く、または二度と同じことが起こらないように努めることを続け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

今後、カメラに収めたい内容や夢があれば、聞かせてください。

今回、監督として映画制作に関わって、映像制作が本当に好きだということが自分でもわかりました。撮影に行くのが楽しみでしたし、それをどう1本の映画にするか編集の作業は苦しみながらも幸せでした。いろいろと興味のあるテーマはありますが、韓国に何度か来て、福島風評被害の大きさにびっくりしました。韓国の人たちにきちんと生きた情報を伝えることが必要と思いました。

Cool Japan! 세계유산지역의 매력 발신

일본 외무성의 청소년 교류 사업 'JENESYS 2018'의 일환으로 한국의 대학생단 58명(인솔자 5명, 학생 53명)과 고등학생단 30명(인솔자 2명, 학생 28명)이 9박 10일 일정(대학생: 2019년 2월 19일(화)~2월 28일(목)까지, 고등학생: 2019년 2월 13일(수)~2월 22일(금)까지)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의 세계문화유산인 '나가사키(長崎)와 아마쿠사(天草) 지방의 잠복 크리스찬 관련 세계유산'을 비롯해 한국과 인연이 깊은 지역을 시찰하며 고대부터 현재까지, 양국 교류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참가자들은 SNS 등을 통해 각자가 느낀 일본의 매력을 알렸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일본의 일반 가정 생활을 직접 체험해보는 홈스테이, 학교 방문, 다양한 사적 및 자료관 방문, 지역 명물을 활용한 체험 활동과 더불어 유카타 입기, 다도 체험 등 일본의 전통 문화 체험이 마련되었다. 또 일본 학생과 한국어 학습자의 필드워크를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해 배우면서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귀국 후에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의 SNS를 통해 일본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거울 속의 나는 왼손잡이

김성수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거울 속의 나는 왼손잡이

아사쿠사, 요코하마 같은 큰 도시부터 구마모토, 나가사키 같은 지방도시까지 7개 현을 답사하면서 다양한 일본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처음 공항에서 아사쿠사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를 탔을 때였다. 한국과 달리 운전석은 오른쪽에 있었고, 버스는 왼쪽 차선을 달리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이 반대되는 것은 이뿐만 아니었다. 일본에서는 젓가락을 테이블과 수평으로 놓아두고, 반으로 가를 때도 가로 방향으로 두고 상하로 가르는 것이 예의라고 홈스테이 가정의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셨다. 젓가락을 세운 채 좌우로 가르는 것은 상대방에게 실례가 된다고 했다. 만약, 서로의 문화를 전혀 알지 못하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밥을 먹는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의도치 않는 실례를 범할 수 있겠다

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은 반대되는 부분이 많았다. 마치 거울을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나도 나 자신

하지만, 우리는 많이 닮아 있다. 특히, 양국의 닮은 점은 미나미시마 바라에서 홈스테이를 할 때 더욱 선명히 드러났다. 고다쓰에 누워 "뉴스 좀 보자"는 아버지의 모습이나 저녁을 조금 먹자, 더 먹으라고 권유하는 모습 등 우리와 닮은 점이 많았다. 국적은 달라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손님을 대접하려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같다. 거울에 비친 나는 실제 내 모습과는 정반대지만, 결국 거울에 비친 나도 나 자신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번 프로그램을 되새겨보니, 단순히 한국과 일본이 다르기만 한 것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국적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얼굴과 서로의 행동을 보고 있는 셈이다.

'악화된 양국 관계'라는 문구를 이번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수십 번 넘게 접했다. 9박 10일간의 아쉬운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과연 양국의 관계 증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다.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만난 어느 직장인과의 대화, 요코하마 초밥집 주방장과 나눴던 한국 드라마 이야기. 정치적, 외교적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지금도 '민간 교류'의 희망은 남아 있다. 고마 신사의 관계자가 이성과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처럼 균형을 지키면서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내 인생에 일본의 매력을 담다

이채은 한국관광고등학교 관광일본어통역과 3학년

전국학생일본어연극대회에서 금상을 받으며 9박 10일 동안 청소년 방일단으로 도쿄와 가고시마를 방문했다. 입구의 제동이 너무 예뻐던 아사쿠사(淺草), 아름다운 빛깔의 기모노 체험, 절대 잊을 수 없는 추억의 홈스테이, 각국 문화를 알 수 있었던 일본고등학교와의 교류, 가고시마의 축복같은 자연을 느꼈던 이부스키(指宿) 온천, 사쿠라자마가 한눈에 보이는 센간엔(仙巖園) 등.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내가 모르던 숨겨진 일본의 매력을 느끼고, 더 알아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이번 프로그램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치고 이치에'(一期一会)라는 표현이 떠오른다. 방일단 프로그램을 통해 일생에 한 번밖에 느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 경험은 바로 '홈스테이'였다. 한 가정당 4명이 조를 이루었는데, 홈스테이 가정에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부터 일본 가정의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기대까지, 정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대면식을 시작했다. 첫 만남의 어색함도 잠시, 홈스테이 가족과 석양이 지는 바다를 보러 가고, 친구의 생일 파티를 하면서 나는 마치 할머니 댁에 와 있는 듯한 일상의 편안함을 느꼈다. 홈스테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할머니와 나는 대화 속에서 우연히 듣게 된 버킷리스트였다. 일흔 살이 가까운 나이에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며,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할머니의 열정에 나도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길고도 짧은 홈스테이를 마치고 이촌식(離村式)에서 할머니와 인사할 때, 꼭 다시 놀러 오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가슴이 먹먹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음식부터 잠자리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신 할머니의 정을 느끼며, 마치 새로운 가족이 일본에 생긴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이외에도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어묵과 비슷한 가고시마 특산물인 '사쓰마아게(薩摩揚げ) 만들기 체험'이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재료 손질을 하고, 직접 모양을 만들어 튀긴 후, 점심으로 맛있게 먹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체험을 한 적이 없는 나로서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지역 특산물을 만드는 경험은 매우 신선했고, 이를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매우 멋지게 느껴졌다. 사쓰마아게 만들기야말로 가고시마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아닌가!

이번 일정 동안 나는 일본의 지방도시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도쿄, 오사가 같은 화려한 대도시만 선호하던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 그리고 관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전공하고 있는 만큼, 이번엔 방문한 곳을 기반으로 나만의 여행상품을 만들어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고 싶은 꿈이 생겼다. 대도시에는 다양한 매력으로 넘쳐나지만, 가고시마의 자연환경과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향토음식 등 색다른 일본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더불어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지정하는 '올해의 한국관광도시'에 대한 자료를 번역해서, 일본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에게 한국의 매력을 알리고 싶다.

나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 세대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어, 다음 세대가 더욱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 이것이 JENESYS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점이자 Cool Japan 리포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돗토리 사구

돗토리시와 청주시의 교류

돗토리시(鳥取市)는 돗토리현(鳥取県) 동부에 위치하며 바다와 면한 인구 약 19만명, 면적 765.31km²의 도시다. 연안부에 펼쳐진 해안 사구인 돗토리 사구는 연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시내 유수의 관광지로서, 2010년 10월 일본 열도 형성에 따른 다양한 지형, 지질 등을 보이며, 세계 지오파크 네트워크에 가입이 인정된 '산인(山陰) 해안 지오파크'의 대표적 명소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또 돗토리 온천, 요시오카 온천 등 수많은 천연 온천이 용출하는 지역이다. 이 밖에 20세기 배(二十世紀梨)와 마쓰바가니(松葉ガニ, 수컷 대게) 등의 특산품과 4,000명의 무희가 추는 돗토리 산산마쓰리(鳥取しゃんしゃん祭) 등 관광 자원이 많다.

돗토리시의 자매도시 교류

돗토리시는 충청북도 청주시와 자매도시결연을 맺고 있다. 청주시와의 교류는 1986년 당시 돗토리 시장이 청주시를 방문하여 시장으로부터 청주시 최초로 명예시민 칭호를 받은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1990년 8월 30일 정



돗토리 사구 액티비티(샌드보드)

식으로 자매도시결연을 맺고, 2011년 체결 20주년 기념행사를 두 시에서 개최하는 등 시민 교류를 중심으로 교육, 문화, 스포츠 등 폭넓은 분야에서 약 30년간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6개월 동안, 시 직원을 교환 파견하는 직원 교류를 실시하고, 돗토리현 동부지구 일한친선협회와 청주국제교류회라는 민간단체 간의 교류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자매도시 간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또 돗토리시 소개를 포함해서 격년으로 청주시에서 개최되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 돗토리시 부스도 출전하고 있다.

돗토리시의 관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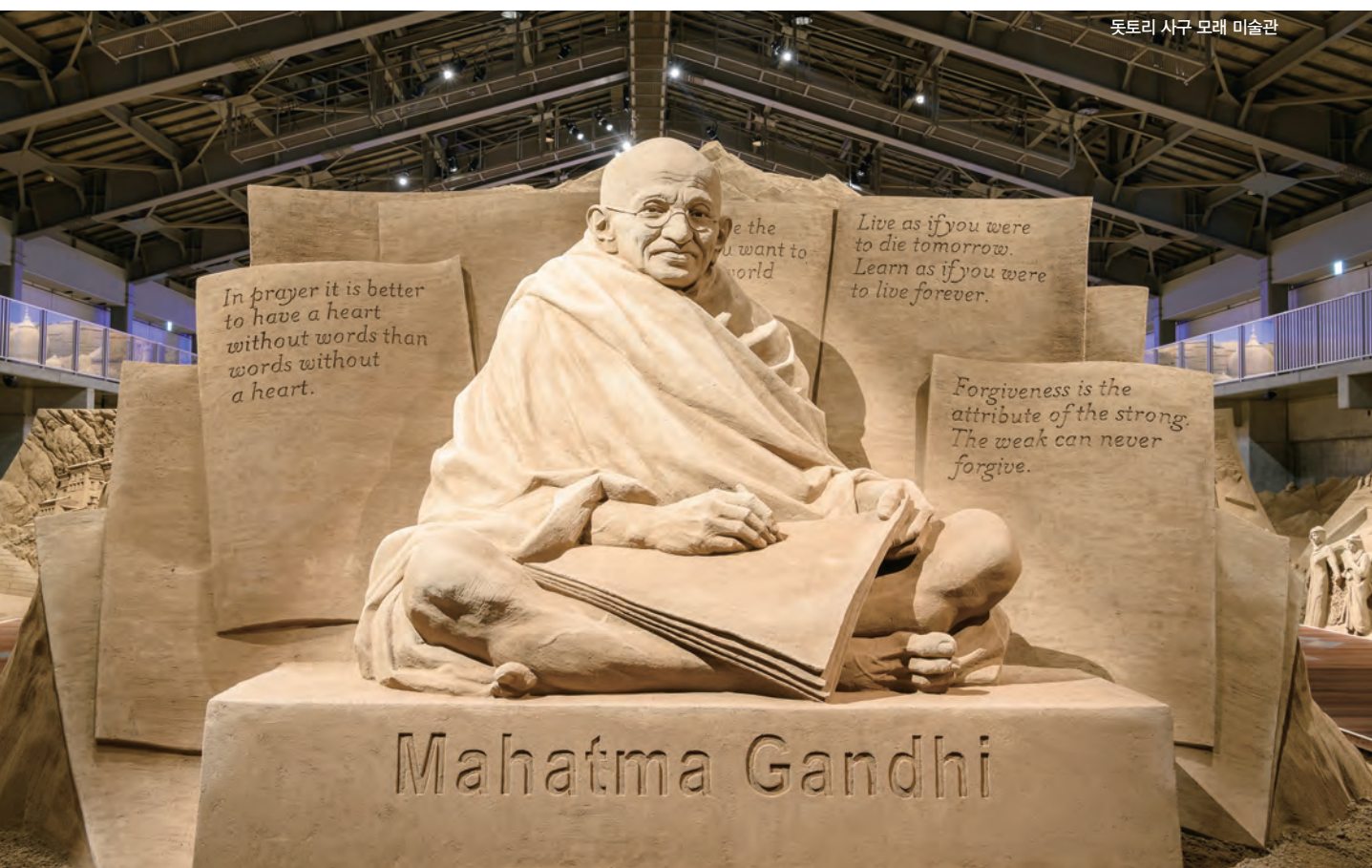
앞에서도 소개했듯이 돗토리시는 많은 관광 자원이 있는 도시다. 이 가운데 일부를 소개한다.

돗토리 사구

일본 최대급 사구인 돗토리 사구는 주고쿠 산지에서 흘러나온 모래가 바닷바람에 의해 십 만년의 세월에 걸쳐 쌓이

면서 형성되었고, 동서 16km와 남북 2km에 걸쳐 펼쳐지고 있다. 풍속 5~6m의 바람이 불면서 나타나는 물결 무늬의 풍문(風紋)과 강풍, 폭우 뒤에 보이는 모래 기둥인 사주(砂柱), 눈사태처럼 모래가 무너지는 사렴(砂簾) 등 바람과 모래에 의해 만들어지는 예술 작품 같은 표정과 함께, 오징어잡이 배의 불빛이 바다를 떠다니는 어름의 어화(漁火), 폭설 지역다운 겨울 설경과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날이 모습을 바꾸기 때문에 같은 경치를 두 번 보는 일은 없다고 한다.

나아가 돗토리 사구에서는 해풍을 받아 하늘로 날아오르는 패러글라이더, 모래 위를 미끌어져 내리는 샌드 보드, 모래 언덕을 자전거로 달리는 팻바이크(Fatbike), 역사와 대지를 느낄 수 있는 사구 요가 등 돗토리 사구의 모래를 활용한 돗토리만의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돗토리 사구 일각에 위치한 돗토리 사구 미술관에서는 2006년 전시를 시작한 이래, 매년 주제를 달리해서 모래로 만든 사상 조각(砂像彫刻)을 전시하고 있다.



돗토리 사구 모래 미술관

이 미술관은 세계 유일의 모래 조각을 전문으로 전시하는 전천후형 미술관으로, 전시된 조각은 모두 돗토리 사구의 모래와 물로만 만들어진다. 이 조각은 전시 기간이 지나면 부순다. 이 모래를 사용해서 새로운 모래 조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시 기간에만 작품을 볼 수 있다는 덧없음도 그 매력 중 하나다. 올해는 ‘모래로 세계 여행 · 남아시아편’이라는 제목으로 남아시아를 주제로 한 사상 조각을 2019년 4월 13일부터 2020년 1월 5일까지 전시한다.

하쿠토 해안, 하쿠토 신사

돗토리 사구 서쪽 끝에 위치한 하쿠토 해안(白兎海岸)은 일본 신화인 ‘이나바노시로우사기(因幡の白兎)’의 무대가 된 곳이다. 상어를 속여서 껍질을 벗긴 흰 토끼가 지나가던 오쿠니누시노미코토(大国主命)에게 상처 치료법을 배우고, 그 답례로 절세 미녀라 불리던 야가미히메(八上姫)와 맺어질 것이라고 했더니, 그대로가 이루어졌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이 일화가 일본 최초의 러브스토리로 불리면서 연인의 성지로 인정받고 있으며, 해안이 근처에 세워진 신화에 나오는 흰 토끼가 모셔진 하쿠토 신사(白兎神社)는 연애 성취에 효험이 있다고 한다. 또 일본의 의료발상지이기도 하고, 피부병을 비롯해서 다양한 질병의

치유 목적으로 찾는 사람도 많다.

외국인 수용 환경

돗토리시에서는 외국인이 방문하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수용 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가 JR 돗토리 역 구내에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안내소인 국제관광객 서포트센터 운영이다. 이곳에서는 한국어가 가능한 스태프 2명을 배치하여, 돗토리시와 그 주변 지역의 관광 안내를 하고 있다. 또 국제관광객 서포트센터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2,000엔 택시 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한정으로 1인당 2,000엔에 3시간 동안 돗토리시 일대를 둘러보는 택시로써, 서포트센터에서 사전에 3시간 관광 코스를 정하기 때문에, 운전자와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도 이용하기 쉽다. 또 언어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시내 택시 60대에 번역기를 탑재하고 있다.

이 외에 모바일 Wi-Fi 라우터도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앙케트에 답하고 SNS에 정보를 올린 사람에게 대여하고 있으니, 돗토리 방문시 활용하면 좋다. 또 자연, 문화, 전통, 예술 등 다양한 매력이 넘치는 돗토리시를 꼭 방문하기 바란다.

(집필 : 돗토리시, 협력 : CLAIR, Seoul)

하쿠토 해안





세계로 가는 시라하마정 과천시와 태안군의 교류

시라하마정(白浜町)은 2006년 3월 1일, 시라하마정과 히키가와정(日置川町)의 합병으로 현재의 시라하마정이 되었다. 와카야마현(和歌山県) 남서부에 위치하며, 기이스이도(紀伊水道)와 면한 반도 지역과 돈다가와(富田川) 강의 하류 지역, 히키가와(日置川) 강 유역의 3개 지역으로 나뉜다.

2015년 고속도로(긴키자동차도로 기세이선-近畿自動車道紀勢線)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난키 시라하마(南紀白浜) IC가 개통되어 교토, 오사카, 고베로부터 접근하기 좋아졌다. 간사이국제공항에서 2시간 정도로 간토권에서도 하네다 공항과 이어지는 현 내 유일한 공항인 난키시라하마공항(南紀白浜空港)이 있어, 약 1시간 비행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시라하마를 목표로

시라하마정은 2009년 경기도 과천시와 우호도시결연을 맺었다. 이후, 행정 간의 직원 파견 교류나 민간단체의 상호 방문을 다수 실시하고 있어, 직원과 주민 간의 상호 친

교가 돈독해지고 있다.

민간 교류인 여성 배구팀 교류는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로 9회째가 된다. 선수단은 매년 시라하마정과 과천시를 오가며 열띤 경기를 펼치면서 우의를 다지고 있다.

또 청소년 해외파견사업으로 여름과 겨울의 긴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시라하마정과 과천 시내의 중고교생을 상호 파견하고 있다. 현지에서 홈스테이와 학교 방문을 통해서 다른 문화와 생활습관을 체험하고,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 국제교류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2017년에는 새롭게 충남 태안군과 우호도시결연을 맺었다. 바다를 면한 관광지로써 관광은 물론, 어업이나 농업도 시라하마정과 비슷하여 상호 도시 조성에 효과적인 교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라하마정의 특색

바다, 산, 강의 풍요로운 자연에 둘러싸인 시라하마정은 연중 밝고 온난하며 살기 좋은 기후다. 하와이의 와이키키 비치와 자매 해변 제후를 맺고 있는 시라라하마(白良浜)는 남국 분위기를 자아내며, 이름 그대로 하얀 모래와 푸른 바다를 보기 위해, 여름에는 많은 해수욕객으로 붐빈다. 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많은 경승지가 점재해 있으며, 산간부에는 청류인 히키가와(日置川) 강, 세계유산에 등재된 구마노고도 오헤치가이도(熊野古道大辺路街道)와 다양한 종류의 관광 자원을 보기 위해 매년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다.

해안에서 솟아나는 역사 있는 온천

연간 약 300만명이 찾는 시라하마의 매력 중 하나는 1350년의 역사가 있는 온천이다. 효고현 아리마 온천(兵庫県 有馬温泉), 에히메현 도고 온천(愛媛県 道後温泉)과 함께 일본의 3대 고탕(古湯)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일본의 역사서인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무로노유(牟婁湯)와 기노유(紀湯)라고 적혀 있으며, 천황의 행차가 이어졌다. 이 가운데, 태평양에 그대로 잠긴 듯한 노천탕 사키노유(崎の湯)는 657년 사이메이 천황(齊明天皇)과 나카노오에노 천자(中大兄皇子)가 온천을 했다는 유서 깊은 탕이다. 시라하마 온천(白浜温泉)은 풍부한 수량과 자가 원천을 갖춘 숙박시설도 많다. 각 원천에 따라 수질도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촉감의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것이 매력이다. 또 거리 곳곳에는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족탕이 있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시라하마정의 관광

시라하마정에서는 오랜 세월을 거쳐 만들어진 장엄한 자연 조형물을 볼 수 있다. 파도의 침식으로 섬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뚫린 엔게쓰토(円月島, 정식 명칭은 다카시마(高島))는 커다랗게 뚫린 구멍 너머로 석양을 바라볼 수 있어, 일몰 시간대에는 카메라를 든 많은 사람으로 붐빈다. 또, 높이 약 50m의 단애 절벽이 남북으로 2km에 걸쳐 이어지는 산단베키(三段壁), 파도의 침식으로 생긴 평평한 해저가 용기한 센조지키(千畳敷) 등 아름다운 바다와 역사





를 느끼게 하는 자연경관이 보는 사람을 압도한다. 이 밖에 시라하마정의 인기 테마파크인 어드벤처 월드에는 지난해 막 태어난 아기 판다를 포함해서, 6마리의 판다 가족이 살고 있다. 판다를 가까이서 보는 것은 물론, 코끼리나 라이온 등을 만날 수 있는 사파리 월드나 활기찬 돌고래 쇼 등 세대를 불문하고 즐길 수 있다.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 오피스

시라하마정은 기업 유치의 일환으로 '시라하마정 IT 비즈니스 오피스'라는 임대 사무실을 정비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서 인터넷 환경만 갖추어지면 어디서든 자사 사무실처럼 일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텔레워크라는 업무 방법이 점차 보급되고 있는 현대에서, 시라하마정이라는 리조트지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몸과 마음 모두 편하게 일에 집중할 수 있어 생산성

항상이 기대된다. 개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기업이 선택하는 마을로서 성장하고 있다.

체험형 관광 '혼마몬 체험'

관광도 관광이지만, 시라하마정 남동부에 있는 히키가와(日置川) 지역을 거점으로 한 체험형 관광 '혼마몬 체험'이 각광을 받고 있다. 혼마몬이란 지역 사투리로 '진짜'를 의미한다.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농림어업 체험과 그 지역에 뿌리내린 전통산업 작업체험, 또 시골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신 고향에 돌아온 듯한 농림어촌 체험. 풍부한 자연과 사람들의 웃는 얼굴은 어린이들에게 여유로운 마음을 길러주고, 식교육 등으로 이어지는 교육 여행이 인기가 있다.

(집필 : 시라하마정, 협력 : CLAIR, Seoul)



하기의 거리 풍경

고양이가 있는 야마구치 도자기 마을 하기 萩



고양이 마을 하기

도자기 마을 하기

싱그러운 초록의 봄 날 야마구치현(山口県)의 작은 항구 마을 하기(萩)를 찾았다. 하기는 야마구치현 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대도시인 후쿠오카(福岡), 시모노세키(下関), 야마구치(山口)에서 열차나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다. 고속 열차가 다니는 신칸센 열차가 정차하는 신야마구치역(新山口駅)에서는 버스로 1시간 10분, 시모노세키에서는 열차로 2~3시간 정도 걸린다. 열차 이용 시에는 열차 시간표를 확인하고 시간 계획을 잘 잡지 않으면, 환승 대기 시간이 2~3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미리 잘 준비해야 한다.

하기는 과거 하기성(萩城)을 중심으로 번영하던 항구 마을이자 성하마을(城下町)이다. 지금은 성터 만이 남아 있지만 그 주변으로 상점 거리가 조성되어 있으며, 당시의 건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하기야키(萩焼)라는 도자기의 명소로 유명하다. 하기야키는 시간이 지나





하기 버스센터



하기역

면 색이 바뀌는 특성과 부드러운 표면으로 일본의 다도 명인들이 사용하는 자기로 유명하다. 하기에서는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보거나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 넣는 도자기 체험도 할 수 있다. 또, 고양이가 많기로도 유명하며 네코노정(猫の町, 고양이 마을), 고양이 절 운린지(雲林寺) 등 명소가 많으며 마을의 캐릭터 또한 하기냥(萩にゃん, 고양이)이다.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



하기 도자기 체험

하기냥 萩にゃん

삼색의 무사 고양이로 하기의 특산품인 꿀을 좋아한다.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네코노정 이야기의 고양이를 모델로 만들어진 캐릭터로 하기를 홍보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한다. 네코노정 전설로 하기에는 나가이모토후사(長井元房)라는 무사가 있었는데 그는 고양이를 아주 좋아해서 삼색 고양이를 애지중지 키웠다. 그러던 어느 날 하기의 영주가 죽고 무사도 뒤를 따라 이곳에 묻혔다. 혼자가 된 고양이는 무사의 묘 옆을 떠나지 않으며 무덤가에 머물기 시작했다. 무사가 죽은 뒤 49일째 되던 날 고양이는 묘비 앞에서 허를 깨물고 죽어 있었고, 무사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승려에 의해 발견된다. 승려는 무사의 무덤 바로 옆에 작게 고양이의 무덤을 만들어 주고, 그 후 무사의 집 앞을 지날 때면 주인을 찾는 고양이 소리가 들리게 되었고 무사의 집 앞 거리는 네코노정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하기냥 포스터



하기냥 조각



마을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수로



아마나쓰 나무



격자무늬 회벽 골목 길



마을의 작은 카페

소소한 풍경의 하기 마을을 걷다

역에서 나와 하기냥이 반갑게 맞이해 주는 역 옆의 관광안내소에서 지도를 받아 마을을 걷기 시작한다. 하기는 아부강(阿武川) 하류의 퇴적 지형으로 대부분이 평지여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기에 좋다. 자전거는 관광안내소에서 대여 할 수 있다. 아부강은 이곳에서 하시모토강(橋本川)과 마쓰모토강(松本川)으로 나뉘며 각각 바다와 만난다.

강으로 둘러싸인 마을에는 곳곳에 수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로를 따라 골목 길이 펼쳐진다. 강변에는 벚꽃 나무가 많아 봄이 되면 벚꽃 길을 이루며, 겹벚꽃도 많아 긴 시간 벚꽃을 감상할 수 있다. 마을 곳곳에는 굴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아마나쓰(甘夏)라는 품종으로 이 지역의 특산물이다.

마을에는 격자무늬 회벽이 아름다운 주택들이 많으며 다



하기 성터



세계유산 하기 반사로(금속 용해로)



양한 가문의 저택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성까지 이어지는 돌담 길을 따라 골목 골목을 걷다 보면 곳곳에 도자기 가게와 아담한 카페들이 많으며, 카페에서는 지역의 특산품을 이용한 요리들이 하기 도자기에 이쁘게 담겨 나온다. 중간 중간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가게를 구경하며 걷다보면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기성터가 보인다. 하기성은 바닷가의 작은 산인 시즈키산(指月山, 143m) 기

슽에 세워진 성으로 대부분의 건물이 해체되고 현재는 석축과 해자의 일부가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지금은 시즈키 공원으로 정비되어 있으며 600여 그루의 왕벚나무가 심어져 있다. 시즈키 공원과 성 입구의 세키쵸 공원(石彫公園)에는 하기의 고양이들이 모이는 장소로 따뜻한 봄 햇살을 즐기는 하기 고양이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성터에서 나와 다시 마을 쪽으로 향하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과 마주치며 일본 소도시의 소소한 풍경 속으로 빠져든다. 마을에서 살짝 떨어진 항구에는 규슈, 야마구치의 근대화산업 유산군의 유적이 남아 있으며 이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되어 있어 함께 둘러보면 좋다. 하기 산책의 마무리는 몸과 마음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주는 따뜻한 온천이 기다리고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04년에 개발한 하기온천(はぎ温泉)은 다양한 수질과 시설이 있으며 바다를 바라보며 몸을 담글 수 있다.





아와지시마의 미치노에키

일본에서 가장 맛있는 햄버거가 있는 아와지시마 미치노에키



미치노에키 우즈시오



오나루토교

미치노에키란

미치노에키(道の駅)는 일본의 각 지자체와 도로관리자가 제휴하여 설치한,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의해 등록된 상업시설, 체험시설, 지역부흥시설 등이 하나가 된 도로시설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며 고속도로는 물론 국도 등 길이 나있는 곳의 휴게시설을 미치노에키라 부른다. 1991년 테스트를 시작해서 1993년 정식 등록되었으며 도로 이용자를 위한 휴게기능(Refresh), 도로이용자

와 해당 지역의 주민을 위한 정보발신기능(Infomation),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개발, 판매와 함께 지역활성화기능(Community) 등 3가지 기능을 담당하며 일본 전국에 1,154 곳이 등록되어 있다(2019년 4월 기준).

아와지시마의 미치노에키

아와지시마를 연결하는 큰 대교 주변에는 휴게소인 미치노에키가 각각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 역시 관광명소로 유명하다. 아카시해협대교를 건너 아와지시마에 들어오면 아와지 SA(아와지 서비스 에리어)와 그 바로 아래 미치노에키아와지(道の駅淡路)가 있으며 아와지시마에서 가장 먼저 생긴 미치노에키다. 이 일대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각도로 아카시해협대교를 관찰할 수 있다. 미치노에키의 식당에서는 아카시해협에서 잡힌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아와지시마의 특산물인 아와지규, 아와지시마 양파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이런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먹거리로 미치노에키 아와지는 2018년 개최한 일본 여행 정보지 자랑(じゃらん)의 미치노에키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 하나의 대교인 오나루토교 인근에는 우즈시오(うず潮)라는 미치노에키가 있는데 아와지시마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나루토 해협의 절경을 감상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일본 전국 지역 햄버거 랭킹(ご当地バーガー)에서 1위를 차지한 아와지시마 어니언 비프 버거(あわじ島オニオンビーフバーガー)를 맛볼 수 있다. 또 전국 2위 햄버거도 이곳에 있는데 아와지시마 어니언 그라탕 버거(あわじ島オニオングラタンバーガー)가 바로 그것이다. 1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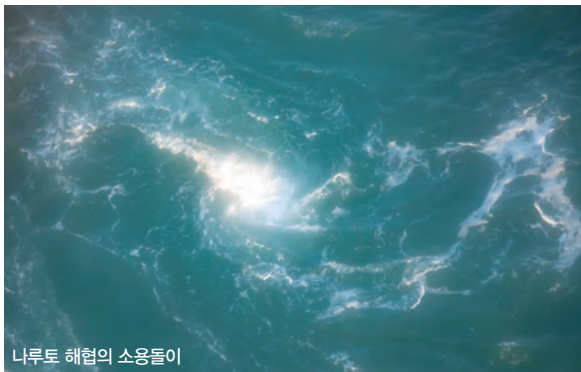


아와지시마의 미치노에키

먹을지 2위를 먹을지 고민이 되는데 판매 개수가 정해져 있어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둘다 맛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덕분에인지 트립어드바이저의 일본 미치노에키 랭킹에서 간사이 지역 1위, 전국 7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아와지시마

아와지시마(淡路島)는 일본의 효고현(兵庫県) 남단의 섬으로 일본의 지중해라 불리는 세토내해(瀬戸内海)의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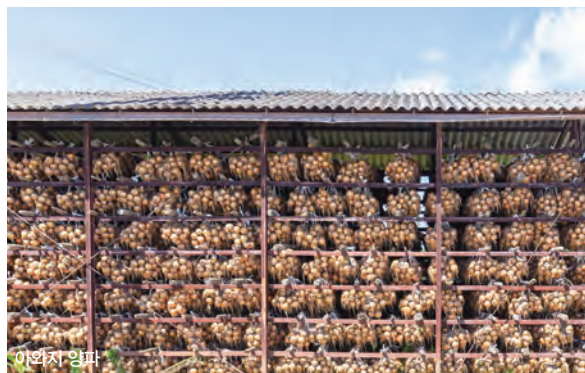
나루토 해협의 소용돌이



아와지시마에서 바라본 세토내해



아와지시마의 양파 동상



아와지 양파

장 큰 섬이다. 오키나와, 대마도에 이어 일본에서 7번째로 넓은 섬으로 고베, 오사카 등 대도시와 인접해 있으며, 일본 본토와 시코쿠(四国)를 다리로 연결하는 섬이기도 하다. 아와지시마는 일본 본토와 연결된 아카시해협대교(明石海峡大橋), 시코쿠의 도쿠시마(徳島)와 연결된 오나루토교(大鳴門橋)의 큰 다리가 있으며 이 주변은 관광 명소로 유명하다. 아카시해협대교는 고베와 아와지시마 사이에 위치한 아카시해협을 가로지르는 세계 최장의 현수교로 3,911m의 길이를 자랑한다. 약 10년에 걸친 공사 끝에 1988년 완공된 이후 아와지시마를 상징하는 건축물로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며, 밤에는 계절이나 시간에 따라 변하는 조명이 다리를 비추며 진주를 이어놓은 듯 아름답다고 하여 ‘펄 브리지’라는 애칭으로도 사랑받고 있다. 또 하나의 다리인 오나루토교는 아와지시마와 시코쿠 도쿠시마를 연결하며, 그 다리 아래는 세계 3대 조류의 하나인 격렬한 조수의 흐름이 폭포처럼 밀려드는 웅대

한 나루토 해협이 펼쳐진다. 조수의 속도는 10.6 노트(약 20km/h)나 되며 이는 세계에서 3번째로 빠른 속도로 알려져 있다. 이때 태평양과 세토내해에서 흘러 들어오는 조류가 이곳에서 만나 충돌하며 소용돌이를 일으키는데, 해안선과 해저 지형의 영향으로 최대 지름 30m의 소용돌이를 만들게 된다.

아와지시마의 특산품과 들리면 좋은 곳

아와지시마는 일본 고대시대부터 황실, 조정애 해산물을 중심으로 한 식재료를 헌상해 온 지역(미케쓰쿠니 御食国)으로 풍요로운 식재료의 혜택을 받은 곳이다. 인기 특산품으로는 브랜드 소고기인 아와지 비프(淡路ビーフ)와 달고 부드러운 고급 식재료로 사용되는 아와지 양파(淡路玉ねぎ)가 있다. 아와지 비프는 일본을 대표하는 소고기 브랜드인 마쓰자카규(松坂牛)와 고베규(神戸牛)의 원조로 알려져 있으며, 아와지시마 섬에서는 우량 암소만을



아와지양파로 만든 빵 (난)



아와지 비프



니시마이코 드라이브 스루 스타벅스

선정하고 품종을 관리하여 우수한 육질을 보존, 계승하고 있다. 아와지 양파는 과일과 같은 당도(10브릭스)로 쓰고 매운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으며, 수분이 많고 부드러워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다. 아와지시마의 특산품은 미치노에키에서 다양한 종류를 찾을 수 있으며, 미치노에키의 레스토랑에서는 이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아와지시마 어니언 비프 버거 등)를 개발, 제공하고 있다.

4월~9월 사이에 아와지시마를 찾으면 우미호타루(海ほたる)라는 바다 반딧불이(갯반디)를 볼 수 있다. 낮에는 바닷가의 모래 속에 숨어 있다가 어두워지면 모래 위로 얼굴을 내밀고 활동하는데, 이때 몸에서 발광물질을 내보내 화학반응을 일으켜 파란색 빛을 발하며 바닷가를 물들인다. 렌터카로 고베에서 아와지시마를 들어가기 전인 니시마이코에는 드라이브 스루 스타벅스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아카시해협대교와 아와지시마를 함께 볼 수 있는 멋진 테라스가 있어 살짝 둘러보면 좋을 것이다.

미치노에키 연결회

일본에서는 미치노에키를 알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미치노에키 연결회(道の駅連絡会)라는 조직을 구성해 활동하며, 미치노에키에 관한 정보교환, 미치노에키간의 상호 연계 등을 통해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일본 각 지역을 9개의 블럭(홋카이도(北海道), 도호쿠(東北), 간토(関東), 호쿠리쿠(北陸), 주부(中部), 긴키(近畿), 주고쿠(中国), 시코쿠(四国), 규슈·오키나와(九州・沖縄)로 나누어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정보공유, 세미나,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으로 미치노에키를 유지, 발전해 나가고 있다.

또 지역의 매력을 잘 전달하면서 운영, 관리가 잘 되는 일본 전국 6곳의 미치노에키를 선정, 전국 모델 미치노에키(全国モデル道の駅)라는 이름으로 홍보하고 있다.

미치노에키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ichi-no-eki.jp/>

스페셜티 커피를
중심으로 한

도쿄의 새로운 커피 트렌드 & 스팟

올 2월, 도쿄 나카메구로(中目黒)에 900평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벅스 오픈 소식이 일본 커피 업계를 뜨겁게 달구었다. 한 때, 2000명에 달하는 웨이팅을 기다려야 입장이 가능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던 스타벅스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도쿄는 커피의 격전지라 불릴 만큼 카페 트렌드가 가장 다이내믹하며 빠르게 진화하는 도시다. 하지만 도쿄의 커피 씬이 특별하게 평가되는 것은 단지 변화가 빠르기 때문은 아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방식을 통해 새로운 문화와 분위기를 재창조해 내는 그들만의 감성과 철학. 이를 통해 도쿄에서만 경험해 볼 수 있는 특별한 문화가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커피 제 3의 물결'로 이야기되는 스페셜티 커피(specialty coffee)를 중심으로 한 도쿄의 새로운 커피 브랜드와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몇 곳을 소개한다.

첫 해외 지점으로 선택한 지역의 매력 블루보틀 기요스미 시라카와



원두도 함께 판매



블루보틀의 드립 커피



이곳에서도 직접 커피 원두를 볶는다.

01

5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하여 '커피계의 애플'로 불리는 블루보틀(Blue Bottle Coffee)이 성수 1호점을 시작으로 국내에 문을 열었다. 2015년, 블루보틀이 첫 해외 상륙지로 선택한 도시는 도쿄였다. 현재 도쿄의 각지에서 12곳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블루보틀이 1호점으로 선택한 지역은 긴자, 롯폰기와 같은 유명 지역이 아닌 기요스미 시라카와(清澄白河)다. 기요스미 시라카와는 크게 알려진 지역은 아니지만 일본 근대식 정원인 기요스미 정원과 10여 년 전부터 갤러리와 미술관, 개성 있는 카페들이 늘어나며 커피와 예술의 거리로 사랑받고 있는 비교적 조용한 지역이다. 이러한 기요스미 시라카와 지역의 특성은 블루보틀 그 자체가 문화로 자리잡고자 하는 브랜드 철학에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는 장소가 아닐 수 없다. 블루보틀 이외에도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카페 올프레스 에스프레소(allpress espresso), 대형 카페보다 로컬 주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어라이즈 커피(Arise Coffee roasters) 등을 함께 둘러볼 수 있으니 도쿄의 블루보틀 중 단 한 곳을 방문해야 한다면 기요스미 시라카와 본점을 추천한다.

위치 東京都江東区平野 1-4-8
전화번호 비공개
영업시간 매일 8AM - 7PM

02



대형 로스터리 기계

세계 다섯 번째 리저브 로스터리 오픈 나카메구로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도쿄

벚꽃의 명소로 자리잡은 나카메구로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도쿄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도쿄



볶은 정도에 따라 다른 색의 커피 원두

도쿄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로 알려진 나카메구로, 메구로 강변에 세계 최대 규모로 새롭게 자리잡은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도쿄는 일본의 유명 건축가 구마 겐고(隈研吾)를 비롯한 현지 공예가들의 힘으로 만들어졌다. 로스터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맞게 되는 16.7m 높이의 커피 캐스크는 일본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핸드메이드 구리 벚꽃으로 장식되어 있다. 더불어 일본 종이 접기 방식인 오리가미에서 영감을 받은 목재 천장과 오랜 일본의 차 문화를 새롭게 해석하여 오픈한 티바나 바(Teavana bar) 등은 오직 도쿄 로스터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디테일이다.

생두가 한 잔의 커피가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구경하는 재미와 100가지에 달하는 특별한 커피와 차, 칵테일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중 깃사텐(喫茶店)이라 불리는 일본 전통 다방의 메뉴 '크림 소다'에 영감을 받아 만든 티바나 크림 소다 마차(Teavana™ CREAM SODA MATCHA)와 위스키 배럴에 숙성한 원두를 콜드 브루하여 바닐라시럽을 섞어 마시는 배럴 에디지드 콜드브루 (BARREL-AGED COLD BREW) 등 도쿄 로스터리에서만 마실 수 있는 커피 및 음료를 추천한다.

위치 東京都目黒区青葉台 2-19-23
전화번호 +81-3-6417-0202
영업시간 매일 7AM-11PM (라스트오더 10:30PM)



마루야마 커피 니시아자부

일본 스페셜티 커피 문화의 리더 마루야마 커피



마루야마 커피 테이크 아웃 컵



다양한 드립 기구를 이용하는 마루야마 커피



빛이 이쁘게 들어오는 니시아자부지점

03

속도에서 맛으로, 에스프레소에서 드립으로 변화하는 '커피산업 제 3의 물결'을 주도한 것은 비단 해외에서 들어온 브랜드만은 아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세계 최고의 원두를 들여와 일본에 소개해온 마루야마 커피는 일본 스페셜티 커피 문화를 자립적으로 끌어온 리더로 손꼽힌다. 마루야마 겐타로(丸山健太郎) 대표는 가루이자와에서 마루야마 커피를 창업한 이후, 1년의 절반을 커피 산지에서 원두를 엄선하는데 시간을 쏟을 만큼 원두에 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마루야마 커피가 특별한 것은 현대적으로 해석된 일본 전통 다방, 즉 깃사텐(喫茶店)을 떠오르게 하는 전통적인 분위기와 서비스를 경험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루이자와 본점을 포함해 10곳의 점포가 운영되며 그 중 도쿄에는 오모테산도(表参道), 니시아자부(西麻布), 오야마다이(大山台) 세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마루야마 커피에서는 원두의 특징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해주는 프렌치 프레스 방식의 추출법을 주로 사용한다. 직접 로스팅한 신선한 원두를 100g 단위로 구입할 수 있는데, 커피 생산자의 사진과 원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읽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전통식 다방을 연상시키는 인테리어의 니시아자부 매장과 싱글오리진만을 취급하는 오모테산도 매장을 추천한다.

위치 東京都港区西麻布 3-13-3
전화번호 +81-3-6804-5040
영업시간 9AM-9PM

04



다양한 종류의 커피 원두



원하는 취향의 커피를 처방해 드립니다 커피 마메야

2011년 오토테산도의 작은 골목의 오래된 가옥에서 시작한 오토테산도 커피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2015년 돌연 문을 닫은 오토테산도 커피 자리에 2017년 커피 마메야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오토테산도 커피를 오픈했던 구니모토 에이치(國友栄一)가 오랜 기간 구상해온 새로운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으로 바리스타가 내려준 커피를 맛아서 즐길 수 있는 기존 카페와는 다른 형태를 지향한다. 흡사 약을 처방해주는 약사와 같은 느낌을 주는 바리스타들은 소믈리에가 와인을 추천하듯 커피의 산지와 로스팅 상태에 따른 차이점을 설명해주며 원두를 추천한다. 취향에 맞게 추천 받은 커피는 시음할 수 있으며 원두를 구입하면 집에서도 같은 컨디션의 커피를 마실 수 있게 자세히 내용을 기록한 레시피 카드를 받을 수 있다. 미니멀하게 디자인된 공간을 닮은 원두 패키지는 선물용으로도 좋다.



마메야 커피의 드립 커피



약사와 같은 복장의 바리스타들

위치 東京都渋谷区神宮前 4-15-3
전화번호 +81-3-5413-9422
영업시간 매일 10AM-6PM



관광 열차 배루몬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다카오카시

도야마현 다카오카시(富山県 高岡市)는 일본 혼슈의 중앙에 있으며, 인구는 약 17만명, 면적이 210km²인 도야마현 서부의 중핵 도시다. 서쪽은 산간지역과 북동쪽은 바다와 면해 있으며, 자연이 풍요로운 지역으로 국보 즈이류지(瑞龍寺)와 야마초스지(山町筋, 흙벽 구조의 집 거리), 가나야정(金屋町)의 옛 거리 등은 지금도 많은 역사, 문화 자산이 남아 있다. 또 400년에 이르는 다카오카 동기(高岡銅器)와 다카오카 칠기(高岡漆器), 옛추 후쿠오카의 사초로 만든 샷갓(越中福岡の菅笠) 등 '장인의 숨씨와 정신'이 지금도 면면히 살아 숨 쉬고 있으며, 선인이 만들어 갈고 닦은 '장인의 기술'을 계승하면서도, 현재는 디자인 성이 높은 새로운 수공예품을 속속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다.

아마하라시 해안

다카오카시에는 세계 유수의 절경지인 아마하라시 해안(雨晴海岸)이 있다. 아마하라시 해안은 일본의 해안 100선(渚百選)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바다 너머로 3,000m급 산인 다테야마 연봉(立山連峰)을 바라보는 웅



웅장한 다테야마 연봉을 바라볼 수 있는 아마하라시 해안



일본 3대 대불 중 하나인 다카오카 대불

대한 전망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하다. 이 절경을 사진에 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과 카메라맨이 아마하라시 해안으로 모여들 정도다. 또 아마하라시 해안을 한층 즐길 수 있는 시설인 '미치노에키 아마하라시(道の駅雨晴)'가 2018년 4월 오픈했다. 전망 데크가 있고, 앞이 탁 트인 개방적인 아마하라시 해안의 경치를 즐길 수 있으며, 바다 너머로 솟아있는 3,000m급 다테야마 연봉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도 가능하다. 또, 다카오카산 식자재로 만든 화려한 점心和 스위트,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카페도 있다. 무엇보다 '오션뷰'가 특징으로 개방감 있는 곳에서 맛있는 식사를 즐기실 수 있다. 아름다운 경치를 다각도로 즐길 수 있는 미치노에키 아마하라시에서 시간의 흐름을 잊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

관광열차 베루몬타

앞에서 소개한 아마하라시 해안을 비롯해서 도야마현 서부지역의 자연 풍광이 어우러진 관광열차가 다카오카를 기점으로 달리고 있다. 그 이름은 '벨·몽테뉴·에·멜(에칭: 베루몬타)'이다. 달리는 캐릭터를 콘셉트로 액자처럼 보이는 커다란 창을 통해 웅대한 풍경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후시키(伏木)~아마하라시 구간에서는 해안선으로 나오자마자, 아라하라시 해안을 바라보는 절호의 포인트에서 일시 정차한다. 또 일본의 관광열차에서는 드물게 초밥 장인이 승차하여 기차 안에서 초밥을 만들기 때문에, 신선한 해산물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베루몬타를 타고 새로운 각도에서 다카오카의 매력을 느껴보자.



토관이 있는 공지를 재현한 공원

다카오카 대불

다카오카시에는 일본의 3대 대불 중 하나인 다카오카 대불(高岡大仏)이 있다. 다카오카의 대표적인 산업이기도 한 다카오카 동기 제조 기술을 결집해서 30여 년에 걸쳐 만들었다. 높이 15.85m, 무게 65t의 단정한 얼굴로 꽃미남 대불이라 불린다. 다카오카역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며, 시내에 갑자기 나타나는 대불의 모습은 압권이다. 다카오카 거리를 산책하면서 둘러보는 것은 어떨까.

도라에몽과 만날 수 있는 마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인기 있는 도라에몽. 다카오카시는 도라에몽의 작가인 후지코·F·후지오 선생의 출신지로서 태어나서 20세까지 보내며 만화가의 꿈을 키운 곳이다. 다카오카에는 소년기의 추억이 깃든 장소와 그의 발자취를 더듬어 가며, 다수의 원화를 통해 후지코 선생의 만화의 원점을 접할 수 있는 갤러리 등 관련된 장소가 많다.

또, 다카오카에는 해외에서 온 여행자에게도 인기가 많은 노면 전차 '도라에몽 트램'이 운행되고 있으며, 토관(土管)이 있는 공지를 재현한 공원과 도라에몽의 소인 날인 서비스가 있는 다카오카 동기제의 도라에몽 포스트 등 '도라에몽과 만날 수 있는 거리'다.

대표적인 5월 축제

다카오카시에서는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가 개최되는데, 5월에는 다카오카를 대표하는 2개의 축제가 열린다.

우선, 5월 1일에는 다카오카 미쿠루마야마 마쓰리(高岡御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미치노에키 아마하라시

車山祭)가 개최된다. 약 400년의 역사가 있는 축제로서 2016년 12월 ‘야마·호코·야타이 행사(山・鉦・屋台行事)’ 중 하나로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축제의 볼거리는 뭉니 뭉니 해도 시가지지를 달리는 야마(山車)·미쿠루마야마(御車山)의 호화찬란한 모습이다. 미쿠루마야마에 달린 장식에는 금공, 철공 등 다카오카의 뛰어난 전통 공예 기술이 응축되어 있다.

축제가 열리는 5월 1일에는 7기의 미쿠루마야마가 반주 소리(하야시, 囃子)와 마차 바퀴가 뺄거덕대는 소리를 내며 거리를 순행하고, 그 모습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인다. 5월 1일 외에도 다카오카 미쿠루마야마 회관(高岡御車山會

館)에서는 다카오카 미쿠루마야마 1기를 상설 전시하고 있어, 연중 축제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서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또 다카오카의 전통 공예 기술을 결합해서 만든 ‘헤이세이노 미쿠루마야마(平成の御車山)’도 전시되어 있다. 한편, 5월 15일에는 ‘후시키 히키야마 마쓰리(伏木曳山祭)’가 개최된다. 낮에는 꽃을 단 장식 수레, 밤에는 제등 수레로 모습을 바꾸며, 우렁찬 구호와 함께 항구 도시 후시키 마을을 순행한다. 축제의 메인 이벤트는 ‘갓차(かっちゃん)’라 불리는 수레가 부딪치는 순간이다. 약 8톤의 수레와 수레가 격렬하게 부딪치면 ‘뽕’ 소리와 함께 제등이 격렬하게 흔들리며 거리는 열기에 휩싸인다. 후시키 히키야마 마쓰리의 박력 있는 ‘갓차’를 꼭 보러 오기 바란다.

다카오카시 오는 길

다카오카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도야마 키토키토 공항까지 비행기로 약 2시간, 도야마 키토키토 공항에서 합승 택시를 이용하면 바로 갈 수 있다. 또, 2015년 3월에는 호쿠리쿠 신칸센 신다카오카역(新高岡駅) 개통으로 도쿄에서도 호쿠리쿠 신칸센을 타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오사카에서는 전철과 신칸센을 갈아타고 갈 수 있다.

(집필 : 다카오카시, 협력 : CLAIR, Seoul)

5월 15일에 개최되는 후시키 히키야마 마쓰리





밤하늘 만칠 거점으로 유명한 오키미카와

이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체험이 기다린다! 아이치현 오키미카와

도시에서 가까운 일본의 원풍경, 오키미카와

일본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여 도쿄나 오사가 같은 대도시권 접근도 좋은 아이치현(愛知県). 일본사에 이름을 남긴 인물과 관련이 있는 지역이나 사적도 많아, 예로부터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번영해 왔다. 또 도자기나 직물 등의 전통 산업부터 자동차나 항공 우주 등의 첨단 산업까지 집적된 아이치현은 일본의 산업을 담당하는 모노즈쿠리(モノづくり)의 거점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렇게 산업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한 아이치현이지만, 나고야시(名古屋市)와 도요타시(豊田市) 같은 현 내의 도심부에서 북동부로 조금만 차를 달리면, 녹음이 짙은 산과 계곡 등 아름다운 자연이 여행자를 맞이한다.

오키미카와(奥三河)는 신시로시(新城市), 시타라정(設楽

町), 도에이정(東栄町), 도요네촌(豊根村)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가노현과 시즈오카현을 접한 산간에 위치한 오키미카와는 풍요로운 자연과 독자적인 문화, 전통으로 채색된 일본의 산촌 원풍경(原風景)이 아직도 남아 있다.

언제, 어디를 가도 아름답고 즐겁다

풍요로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놀이와 체험으로 가득하다!

오키미카와를 구성하는 4개 기초자치단체(시정촌)는 여러 가지 지역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신시로시만 해도 지역에 따라 다양한 풍경과 문화로 가득하다. 그래서 언제 방문해도 새로운 발견과 체험을 할 수 있다.



차우스야마 고원 시바자쿠라 축제, 도요네촌

꽃으로 물든 산촌의 봄은 아름답다

산속에 있는 오쿠미카와의 봄은 도심보다 조금 늦게 찾아온다. 봄의 무상함을 알리는 너도바람꽃(節分草:절분초)과 매실 산지이기도 한 신시로시에는 매실나무가 많아, 이른 봄의 오쿠미카와는 향긋한 매화 향으로 가득하다. 매화가 핀 후에는 벚꽃과 삼지닥나무꽃이 피어, 명소와 군락지에는 상춘객으로 북적거린다. 또 5~6월까지 오쿠미카와를 선명한 봄빛으로 물들이는 것은 '아이치의 꼭대기'인 도요네촌을 감싸고 있는 차우스야마(茶臼山) 고원의 시바자쿠라(芝桜, 지면패랭이꽃)다. 표고 1,358m의 하늘에 펼쳐지는 시바자쿠라 융단은 압권이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든 사진 찍기 좋은 광경을 즐길 수 있다.

일본의 원풍경과 산골 생활을 만나다

일본인이 어딘가 그리움을 느끼게 되는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오쿠미카와. 신시로시에 있는 요쓰야 센마이다(四谷の千枚田)도 이 중 하나다. 선인들이 험준한 산 표면을 개간하여, 표고차 약 200m사이에 층층이 돌을 쌓아 만든 계단식 논에서는 지금도 벼 농사를 짓고 있으며, 다양한 계절의 변화와 산촌의 생활 풍경을 보여준다. 지역보존회에 의한 모내기와 벼 베기 체험, 생물 관찰교실 등이 개최되어 도시와의 교류에 힘쓰고 있다.

풍요로운 자연이 있는 오쿠미카와는 자연 그 자체가 놀이터!

오쿠미카와는 산간 지형을 활용한 트레일 러닝이나 사이클 스포츠 등이 활발하다. 카약이나 수영 등 하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장소도 많다. 시타라정(設楽町)의 아름다운 원시림을 관찰하는 트레킹과 하이킹, 등산도 인기다. 또 아이치현의 밤하늘을 볼 수 있는 성지로 알려진 오쿠미카와에는 관찰 거점도 다수 있어, 밤하늘 가이드에 의한 관측회나 밤하늘 이벤트 등도 다수 개최되고 있다. 천체 관측 시설을 갖춘 숙박 시설 등도 충분하다.

아름다운 마음과 건강을 일깨우는 뷰티 투어리즘

마음을 치유하는 사철 자연과 온천, 몸에 좋은 음식 등 오쿠미카와에는 심신을 정화할 수 있는 체험이 가능한 액티비티가 많다. 이 중, 세계 시장에서 톱 클래스의 공급량을 자랑하는 도에이정에서 채석한 견운모(絹雲母, Sericite)를 사용한 파운데이션 만들기는 오직 하나뿐인 여행의 추억이 될 것이다.

축제와 신사, 사람을 열광시키는 민속놀이의 보고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해 온 오쿠미카와에는 많은 민속놀이가 전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약 70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하나마쓰리(花祭, 관불회)는 민속 학술적으로도 가

치가 높으며, 일본 최초로 국가 중요 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인간의 영혼과 신체가 가장 약해지는 추운 시기에, 액막이를 위해 신불(神仏)을 온천에 모시고, 오곡 풍요와 무병 안녕을 기원하는 축제가 매년 11월부터 1월 상순까지 오쿠미카와의 십여 개 지구에서 개최된다. 각 지구마다 그 특징과 멋이 조금 다르지만 ‘테호헤, 테호헤’라는 소리에 맞춰 다양한 춤이 밤새 펼쳐지며,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하나가 되어 분위기가 고조된다. 특히 많은 사람을 매료시키는 웅장한 도깨비 춤은 꼭 보기 바란다.

몸과 마음까지 채우는 자연의 사계절 선물

오쿠미카와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다. 풍요로운 자연으로 둘러싸인 지역인 만큼, 제철 미각이나 아름다운 자연이 준 소박한 맛을 즐길 수 있다!

봄에는 산나물과 연어 등 산의 진미를, 여름에는 오쿠미카와의 청류에서 자란 자연산 민물고기를 맛볼 수 있다. 특히 일본에서 가장 맛있는 은어를 선정하는 ‘기키아유키이(利基鮎会)’에서 그랑프리와 준그랑프리를 획득한 도에이정 후리쿠사가와(東栄町 振草川) 강의 은어, 도요네촌 오누가와(豊根村 大入川) 강의 은어는 꼭 한번 맛보고 싶은 최고의 식재료다. 또 가을의 버섯, 겨울의 멧돼지와 사슴 같은 지비에(シビエ, 수렵으로 잡은 야생 동물)도 추천한다. 야생의 맛이 가득한 재료의 장점은 물론, 냄새도 신경 쓰지 않고 맛있는 지비에를 먹을 수 있다는 평을 얻고 있다.

그 외에도 으깬 밥을 꼬챙이에 꿰어 호두와 참깨 등을 섞은 미소다레(된장 소스)와 간장을 발라서 알맞게 구워낸 고헤이모치(五平餅)는 이 지역의 소울푸드다. 오쿠미카와



요쓰야 센마이다 신시로시

에서도 지역이나 가게에 따라 그 맛과 모양이 달라, 비교하면서 즐길 수 있다.

현재, 도요네촌에서 양식 중인 철갑상어와 시타라정의 기누히메(網姫) 연어와 단도규(段戸牛), 신시로시의 호라이규(鳳来牛) 같은 브랜드 와규(和牛), 도에이정에서 키우는 나고야 코친(名古屋コーチン)이나 긴소도리(錦爽鶏)의 닭 등 오쿠미카와의 미식도 주목할 만 하다.

다음은 여러분이 직접 오감을 통해 체험해 보자!

지면으로만은 전할 수 없는 매력이 아이치현 오쿠미카와에는 많다. 실제로 오쿠미카와를 방문해서 직접 보고, 먹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분명히 많다. 이곳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만남을 찾아서 꼭 아이치현 오쿠미카와를 방문하기 바란다.

(집필 : 아이치현 오쿠미카와, 협력 : CLAIR, Seoul)



하나마쓰리 오쿠미카와



파운레이션 만들기 체험 도에이정



안도 다다오
© Christopher Schriener from Köln,
Deutschland - flickr: Tadao Ando

물과 빛 노출 콘크리트의 건축가 안도 다다오 安藤忠雄

일본의 세계적인 건축가인 안도 다다오는 1941년 일본 오사카시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무언가를 만드는 일에 흥미를 가졌던 그는 집 근처의 목공소를 놀이터로 삼아 나무를 이용해 다양한 물건 등을 만들며 놀았다. 오사카 부립 조토 공업고등학교 시절에는 쌍둥이 동생과 함께 프로 복서로 데뷔해 2년 동안 잠깐 활동했다. 학교를 졸업 후 트럭 운전사를 하며 돈을 모아 1962년부터 1969까지 세계 각지로 여행을 다녔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르 코르뷔



빛의 교회 © Bergmann



스미요시의 연립주택
Row House (Azuma House), Sumiyoshi, Osaka, in Japan, 1976, © Oiuysdfg

지에(Le Corbusier)의 건축에 흥미를 느껴 독학으로 건축을 공부하게 되었다. 일본의 사찰, 유적지 등을 다니고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를 여행하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미스 반 데어 로에(Ludwig Mies Van der Rohe), 루이스 칸(Louis Kahn), 르 코르뷔지에와 같은 건축가들의 건축물을 보며 지식을 쌓았다. 1969년 안도 다다오 건축 연구소를 설립해 활동하던 중 1974년 스미요시의 연립 주택(오사카) 설계를 맡았고, 이것으로 일본 건축학회 상을 수상했다. 1980년대 이후에는 미술관, 공공건물, 교회나 절을 많이 지었으며 1993년 독일의 바일암라인에 '비트라 콘퍼런스 파빌리온'을 건축한 이후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1995년에는 프리츠커 건축상을 수상했고 수상 상금 십만 달러를 고베 지진 고아들에게 기부했다. 이후 1997년 영국 왕립건축가협회상, 2002년 미국 건축가협회(AIA) 대상, 2005년 UIA 골드 메달(Union Internationale des Architectes), 존 F. 캐네디 센터 예술금 상 등을 수상하고 미국의 예일대학, 컬럼비아대학, 하버드대학의 건축학부 객원교수를 거쳐 1997년 도쿄



물의 교회, 홋카이도 호시노 리쿠즈토 도마무

대학 교수, 2003년부터 명예 교수를 맡고 있다.

안도 다다오 건축의 특징

그의 건축은 자연과의 조화가 두드러진다. 그는 '건축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라며, 건축이 외적인 조건과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자극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했으며 물과 빛을 잘 이용했다. 그의 건축

물 속의 물은 맑고 조용하며 잔잔하다. 건축물과 매우 인접하여 그 하나로써 편안함과 경건함을 준다. '물'이 두드러진 건축물로는 물의 교회(홋카이도 도마무), 물의 절(고베) 등이 있다. 물론만 아니라 빛과의 조화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연적인 빛을 이용해 어둠과 밝음을 극대화시키고 공간을 강조했다. 빛의 교회(오사카)가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이렇듯 물과 빛 그리고 바람, 나무, 하늘 등 자연은 그의 건축물과 긴밀하게 결합하고 있다. 투명한 소재인 유리



베네세 하우스 뮤지엄, 나오시마



베네세 하우스 뮤지엄, 나오시마



베네세 하우스 오베루, 나오시마

와 노출 콘크리트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간결하고 단순하지만 차갑지 않은 느낌을 받게 하고, 자연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했다. 그의 노출 콘크리트 작품들은 큰 인기를 모으며 많은 건축가에게 영향을 주었다. 또 자연과의 조화와 함께 큰 특징으로 보여지는 것은 건축작품이 기하학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이다. 근대건축의 아버지라 불리는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작품과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다.

세토우치 국제예술제(瀬戸内国際芸術祭)가 열리는 아트의 섬 나오시마(直島)에는 베네세 하우스 뮤지엄, 지중미술관, 이우환미술관 등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다양한 건축물을 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건축물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물의 교회(水の教会, 홋카이도, 1988), 빛의 교회(光の教会, 오사카, 1989), 혼푸쿠지 물의



지중미술관, 나오시마



21_21 DESIGN SIGHT, 도쿄 롯폰기

절(本福寺水御堂, 1991, 고베), 베네세 하우스 뮤지엄(ベネッセハウスミュージアム, 1992, 나오시마), 산토리 미술관(サントリーミュージアム, 1994), 지중미술관(地中美術館, 2004, 나오시마), 도쿄 아트 뮤지엄(東京アートミュージアム, 2004, 도쿄), 오모테산도 힐즈(表参道ヒルズ, 2006, 도쿄), 21_21 DESIGN SIGHT(2007, 도쿄), 도쿄지하철 후쿠토신선, 도쿄코선 시부야역(東京地下鉄副都心線, 東横線渋谷駅, 2008, 도쿄) 등이 있으며 한국에도 가평 한화인재경영원(2008년, 경기도), 제주도 글라스 하우스(2008, 제주), 뮤지엄 산(2012, 제주), 본테박물관(2012, 제주), JCC 재능문화센터(2013, 서울), 숲의 교회(2015, 여주) 등의 작품이 있다. 21_21 DESIGN SIGHT는 회색 마분지로 종이배를 접어 초록 잔디 위에 띄워 놓은 것 같은 독특한 모양이다. 외관 못지 않게 내부 공간 구성도 참신한 이곳은 미야케 이세이의 '만들자, 디자인 뮤지엄(造ろうデザインミュージアム)'이라는 신문 기고문을 계기로 각계의 여러 사람들이 협조, 참여하여 2007년 3월 30일 도쿄 미드타운과 함께 문을 열었다.

일본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는 미야케 이세이, 사토 다쿠, 후카사와 나오토 세 명의 디자이너가 디렉터로서 주요 전시를 선보인다. 자연광이 들어오는 건물 내부는 편안한 동선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 전시를 모두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어두운 복도를 통과하면 다시 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곳으로 나오게 된다.

도시 계획에 의해 도로가 대각선으로 들어서면서 조각나게 된 부지를 그냥 두지 않고 미술관과 주거, 문화 공간이 어우러진 새로운 거리로 조성하여 멋지게 살려낸 센가



도쿄 아트 뮤지엄, 도쿄 센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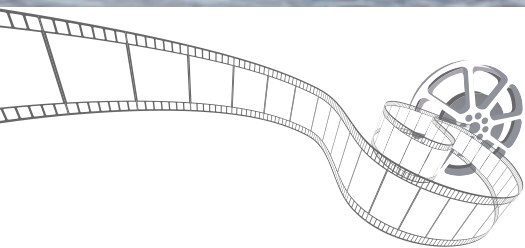
와 프로젝트(仙川プロジェクト)의 중심이 된 건축물이다. 안도 다다오에 의해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폭 16m, 총 길이 400m의 도로 주변에 도쿄 아트 뮤지엄, 센가와 극장, 센가와 델타 스튜디오 1,2 등의 문화 시설과, 공동 주택인 시티 하우스 센가와로 구성했으며 도시 계획이나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과 관련자가 찾으면 좋은 곳이다.

프리츠커 건축상 Pritzker Architecture Prize

프리츠커 건축상은 매년 하얏트 재단이 '건축예술을 통해 재능과 비전, 책임의 뛰어난 결합을 보여주어 사람들과 건축 환경에 일관적이고 중요한 기여를 한 생존한 건축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1979년 제이 프리츠커(Jay A. Pritzker)가 만들고 프리츠커 가문이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건축상 중 하나다. 이 상은 국적, 인종, 종교, 이데올로기와 관계 없이 주어지며, 건축적 작업을 이루기 위해 들어간 양질의 혁신성과 건축적 사고의 훌륭함이 이 상의 기준이 된다. 건설 기술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기여도 역시 중요 요건이다.



21_21 DESIGN SIGHT, 도쿄 롯폰기



바닷마을 다이어리의 촬영지 에노시마 江の島 가마쿠라 鎌倉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海街diary)'는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어느 가족(万引き家族, 2018)'의 고레이다 히로카즈(是枝裕和) 감독의 작품으로 따뜻한 영상미와 과거의 아픈 기억을 새롭게 써내려 가는 지금 이 순간의 풍요로움이 담겨있다. 영화를 감상하고 여운을 기억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영화의 촬영지를 찾는다.

영화 내용의 대부분은 상남(湘南), 일본어로 쇼난이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태평양과 맞닿은 바닷가 마을에서 진행되었다. 이곳





의 중심이 되는 곳이 역사 유적이 많은 가마쿠라와 다리로 연결된 작고 아름다운 섬 에노시마이다. 이곳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은 오다큐선(小田急線) 전차의 종점인 가타세 에노시마역(片瀬江ノ島駅), 혹은 에노덴(江ノ電) 전차가 다니는 에노시마역(江の島駅)에 도착하게 된다. 두 역은 걸어서 5분 정도로 가까워 함께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에노덴은 쇼난 지역을 가로지르는 작은 노면 전차로 영화 속에서는 주인공들이 출퇴근 하거나 이동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었다. 또 에노덴은 농구 애니메이션인 슬램덩크에서 자주 등장하며, 역 앞이 바다인 가마쿠라고교앞역(鎌倉高校前駅)에서는 두 작품의 팬들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진을 찍거나 풍경을 감상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에노시마는 둘레 4km, 표고 60m의 작은 섬으로 다리를

통해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 섬 안에는 전망등대, 에노시마 신사(江ノ島神社), 사무엘코깅 정원(江の島サムエルコッキング苑) 등 볼거리가 많고 상점 거리가 발달되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특히 섬의 정상인 에노시마 전망 등대까지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편하게 올라갈 수 있다. 작품 속에서는 이 섬을 중심으로 풍경이 펼쳐지는 장면들이 많고, 쇼난 지역의 대부분의 해변에서 이 섬이 보인다. 여름부터 종종 이곳에선 하나비(花火, 불꽃놀이)가 열리며 주인공들이 배를 타고 불꽃놀이를 감상하는 장면이 나온다. 섬 인근의 해수욕장인 유이가하마(由比ガ浜), 시치리가하마(七里ガ浜)에는 도쿄에서 피서를 온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며 서핑, 윈드서핑 등 해양 스포츠의 명소로도 유명하다.

에노시마 섬을 한 바퀴 일주하고 다시 에노덴 전차를 타





고 고쿠라쿠지역(極楽寺駅)으로 향한다. 고쿠라쿠지역은 주인공들의 집이 있는 영화의 메인이 되는 장소로서, 고쿠라쿠지 절에서는 아버지의 장례식이 열렸던 곳이다. 영화에서 그랬듯이 장마가 찾아오면 곳곳에 수국(紫陽花)이 아름답게 피어나며 소소한 아름다움이 가득해 진다. 작품에서 나온 식당과 상점들이 이곳에 모여 있어 시간을 잘 맞춰 식사하기에 좋다. 고쿠라쿠지역에서 언덕 위의 길을 따라 조금만 걸어가면 계단과 함께 조주인(成就院)이라는 절이 나오며, 계단 위의 정상에서는 바다와 함께 넓게 펼쳐진 가마쿠라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영화에서도 산 위에서 이 일대를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교통이 불편하고 제법 등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대신 만족하도록 한다.(실제 장소는 인근 기누바리야마(衣張山)의 등산 코스) 또 인근 미타마신사(御霊神社)로 향

하는 골목길 옆의 철길은 에노덴 전차 관광 포스터를 촬영한 곳이니 같은 구도로 기념 사진을 한 장 남겨도 좋을 것이다.

미타마신사를 지나 다시 길을 따라 동쪽으로 걸어가면 조금은 북적북적한 시내의 느낌이 드는 하세역(長谷駅)이 등장한다. 하세역은 역시 수국과 단풍의 명소인 하세데라(長谷寺) 절과 가마쿠라의 상징인 가마쿠라 대불(鎌倉大仏)이 있는 고토쿠인(高德院) 사원과 인접한 곳이다. 이제부터 종점인 가마쿠라역까지는 세 정거장, 이제부터 거리에는 사람도 상점도 많아지며 영화의 배경은 여기까지다. 영화처럼 여운이 남는다면 앞 바다인 유이가하마 해변에서 영화 속 한 장면을 담아 가고 그렇지 않다면 일상으로 들어와 가마쿠라 시내에서 맛있는 요리와 아기자기한 쇼핑을 즐기도록 하자.





가마쿠라는 일본 무사 정권 시절인 가마쿠라 막부(1185~1333) 동안 일본의 정치, 군사의 중심지로 당시의 절과 신사, 상점 거리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지금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과 상권이 발달되어 있다. 일본의 국가사적인 쓰루가오카 하치만구(鶴岡八幡宮)를 중심으로 직선으로 길게 뻗은 참배 길인 와카미야오지(若宮大路)와 그 옆의 상점 거리인 고마치도리(小町通り)에서 쇼팽은 영화의 쿠키 영상과 같은 이 여정의 보너스일 것이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海街diary, 2015

일본을 대표하는 감독 고레이다 히로카즈의 10번째 작품으로 2013년 일본 만화 대상을 수상한 요시다 아키미(吉田秋生)의 '바닷마을 다이어리'가 원작이다. 원작은 '매미 울음소리 그칠 무렵', '한 낮에 뜬 달', '햇살이 비치는 언덕길', '돌아갈 수 없는 두 사람', '남빛', '4월이 오면 그녀는'에 이르기까지 총 6권의 이야기로 바닷가 마을에서 살고 있는 네 자매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일상의 순간들을 그려낸 작품이다. 네 자매로 나오는 아야세 하루카(綾瀬はるか), 나가사와 마사미(長澤まさみ), 가호(Kaho), 히로세 스즈(広瀬すず)와 기키 기린(樹木希林), 릴리 프랭키(Lily Franky), 가세 료(加瀬亮), 쓰쓰미 신이치(堤真一), 오타케 시노부(大竹しのぶ), 사카구치 겐타로(坂口健太郎) 등 일본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들이 열연을 펼쳤다.

일본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로케이션 장소 가이드
<http://loca.ash.jp/>



한일축제한마당 2019 in Seoul 자원봉사자 모집안내

2005년 일한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인 '일한우정의 해'를 계기로 시작한 한일축제한마당이 올해로 15회를 맞이하여 '함께 이어가요 우정을 미래로'를 테마로 9월 1일(월) 코엑스 D홀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양국의 남녀노소 모든 시민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가는 축제로서 시민교류, 청소년교류, 지방단체교류 등이 포함된 대규모 문화교류 행사다.

올해도 양국의 문화교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응모와 참여를 기다리며, 자세한 내용은 한일축제한마당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omatsuri.kr>

일시 9월 1일(일) 10:00~19:30(자원봉사자 활동시간 10:00~20:00)

장소 코엑스 3층 D홀

모집 7월 20일(토) 까지 이메일 접수 omatsuri2019@naver.com

합격자 발표 7월 31일(수) 18:00 (홈페이지, SNS 및 개별통보)

주최 한일축제한마당 2019 in Seoul 실행위원회

문의 한일축제한마당 2019 in Seoul 한국측 운영사무국 02-702-7724

제8회 대학생 일본어 연극대회 참가대학 모집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은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사단법인 한일미래포럼과 공동주최로 제8회 대학생일본어연극대회를 개최한다.

일본어를 배우고 있거나 일본어, 일본문화에 관심이 있는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평소 습득한 일본어 학습 성과를 발표하고, 각 대학 학생 간의 상호 교류의 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최되는 대학생일본어연극대회에 많은 대학생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 모집 요강 등 상세한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kr.emb-japan.go.jp>

응모 8월 9일(금)까지

본선 진출팀 발표 8월 22일(목)

본선 11월 16일(토),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사)한일미래포럼

문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125, 123, 120)



제7회 고교생 일본퀴즈대회 참가자 모집

영남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본과 관련된 문제를 퀴즈로 풀어보는 제7회 일본퀴즈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대회는 7월 20일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개최되며, 단체전 수상자 4팀(8명)에게는 외무성이 실시하는 문화 탐방, 홈스테이, 일본 학생과의 교류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10일간의 일본방문 기회가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주부산일본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busan.kr.emb-japan.go.jp>

일시 7월 20일(토) 14:00~

장소 부산외국어대학교 체육관

응모 7월 8일(월)~10일(수)까지, busan-japan@daum.net

주최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사)부산한일교류센터

문의 주부산일본총영사관 공보문화부 051-410-6124~6

2019 여름일본문화소개전 개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은 여름방학을 맞아 '2019 여름일본문화소개전'을 개최한다. 일본의 어린이가 즐겼던 놀이를 소개하는 전시와 함께 금붕어 건지기, 요요 물풍선 낚기 등 일본의 여름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특별행사로 일본의 기예를 소개하는 다이도게 공연이 열린다. 3팀의 아티스트가 출연해 관람객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그 밖에 매년 인기를 끌고 있는 초등학교 일본문화 체험교실과 일본영화상영회 등이 마련되어 있다. 여름방학 기간 중에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온 가족과 함께 다양한 일본문화를 체험해 보기 바란다. 무료관람

일시 7월 24일(수)~8월 6일(화) 10:00~17:30(일요일 휴관)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문의 02-765-3011(내선 120, 123) www.kr.emb-japan.go.jp

일본의 기예 다이도게 쇼 제6탄

일본 최고의 여성 저글러 미스 설리번, 유쾌한 3인조 브라스밴드 프리코로하우스의 흥겨운 연주 그리고 댄스퍼포먼스팀 부리카마의 코믹댄스를 만나볼 수 있다.

일시 7월 25일(목) 19:30~21:00 7월 26일(금) 14:00~15:3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관람 방법 이메일 예약 신청(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일본의 완구와 놀이문화전 및 여름놀이 체험

기간 7월 24일(수)~8월 6일(화) 10:00~17:30(일요일 휴관)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쇼와시대(1926년~1989년) 어린이들 일러스트 전시

일본의 산업디자인자 겸 일러스트레이터 이치야마 마사토시(市山雅利) 씨의 '쇼와의 어린이들' 시리즈 일러스트 작품 약 15점을 전시하고, 그 시대 일본 어린이들의 생활과 놀이문화를 알아본다.

기간 7월 24일(수)~8월 6일(화) 10:00~17:30(일요일 휴관)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초등학교 일본문화 체험교실

일시 7월 27일(토), 29일(월), 30일(화), 31일(수) / 8월 3일(토)

11:00~12:10(10:50까지 입실)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회의실

모집 초등학교 전학년(보호자 참가 가능), 매회 18명(총 90명)

참가 방법 선착순 이메일 예약신청. 참가비 무료.

(신청 등 상세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故 이수현 18주기 추모 사진전 · 공연 ·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

한일의 빛과 꿈, 의인 이수현과의 뜨거운 포옹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가 공동으로 2001년 도쿄 신오쿠보 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유명을 달리한 의인 이수현 씨를 기리는 사진전이 6월 14일부터~27일까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사진전에는 이수현 씨의 생애를 돌아볼 수 있는 사진 30여 점과 대한민국과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훈장 등 관련자료가 전시되었다.

특별행사로 한국 대중가수 최초로 의인 이수현을 위한 추모곡을 제작한 가수 추가열 씨의 공연과 의인 이수현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가케하시(かけはし)'가 한국 최초로 상영되어, 의인 이수현을 기리고 그의 유지를 함께 하는 자리가 되었다.



아메시의 캐릭터
‘미도리짱’.

가깝고도 먼 이혼나라 일본, 여행만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심층여행 주축자를 유학 여행기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遊學)보고서

지난 3월, 후쿠오카현 신구마치(新宮町)에 22번째 규슈올레 탄생!



하지만 벳부코스는
첫 탈퇴 코스가
되었네.

아마추어 올레꾼이지만 따뜻한 봄이
되니 지금까지 걸었던 올레코스 중,
봄에 걸으면 좋은 코스 한 곳을 강력히
추천한다.



봄! 하면
여기지~

벌떡

*아메에는 몸빼바지 축제가 있다.

푸르른 녹차 밭으로 유명한 후쿠오카현 아메시(八女市), 규슈올레
아메코스.



눈 앞에 펼쳐진
초록 밭 웅단에 눈이
마구 정화된다.

알고 보니 이곳은 일본 3대 녹차 재배지였다.

그런데 ‘아메’하면 녹차 못지않게
유명한 것이 역사 유적 고분군이다.



위에서 본
전방후원분
모습.

이와토야마
고분 특유의
포인트!



놀라워~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형태의 무덤이 있는데
무덤의 형태가 장고를 닮았다 하여 ‘장고분’으로 불리며
우리나라 영산강 유역 일대에서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고분은 규슈 북부의 최대 규모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인 이와토야마고분(岩戸山古墳)이다.
이 무덤의 피장자 쓰쿠시노기미이와이(筑紫君磐井)는
규슈지역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가졌던 인물로
한반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역사자문 -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윤용혁 교수님.

그리고
이와토야마고분은
아메시의 심볼마크가
되었다.

이런 역사 이야기 외에도
오솔길을 따라 걸으면, 하얀
철쭉꽃과 다양한 야생화를
만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만 만날 수 있는
회소식 하나.

사방천지에
널려있는
산딸기~

자연이 선사하는
산딸기 간식은 5월에만
만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메올레 해설가 이노우에 씨와
함께 걸으면 놀멍 쉬멍 그 재미가 두배~



마삭줄로
만드는 꽃잎
바람개비

마삭줄 꽃에
들풀 줄기를
끼워 만들어요~

빙글빙글~

그런데, 올레길에서 만나면 너도나도 친구가 되는 즐거움.



규슈올레 선배들도
아메 삼총사와의 만남도
이 모두가 미스터 규슈올레
구스다 씨의 소개로
만난 친구들이다.

구스다 씨.

강추!

올레길을 완주한 후엔
아메산 녹차 아이스크림!

八女茶ソダクリーム



이들과 더 자주 만나,
올레길을 함께 걷기 위해
오늘도 나는
체력 단련 중이다.

헛헛헛~



그렇게 해서 어디
살 빠지겠냐? 모래
주머니라도 달고
뛰어야지~!